

통치위기와 중산층 이반*

- 노태우 대통령 지지도를 중심으로 -

백정미

대통령의 국정관리에 있어서 국민의 대통령 지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대통령 지지도는 성공적인 국정 수행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며, 정권재창출의 기회이자 위협적 요소로 통치위기를 가져오기도 한다. 본 연구는 현정상 최초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보통사람'을 외쳤던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중산층의 대통령 지지도를 분석하였다. '보통 사람'을 외치던 노태우 대통령은 초기에는 5공청산 등 중산층의 염원이었던 민주화의 길을 걷는 듯 했으나, 집권중반 이후 소수 지배계층의 이익옹호를 위해 민중에 대한 탄압정책을 피는 등 민주화를 역행하였다. 그리고 6·29의 주도계층이었던 중산층을 적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중산층의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노태우 정권 창출 기반이었던 중산층의 지지도 하락은 통치위기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정권재창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이라는 보수대연합을 통해서 정권재창출을 도모해야 했다. 이렇듯 여론의 중심세력인 중산층의 이반은 국정운영, 정권재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주제어: 통치위기, 중산층, 지지도

I. 서론

대통령의 국정관리에 있어서 국민의 대통령 지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은 그의 정책과 아젠다를 수행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높은 국민 지지도를 필요로 한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을 때 대통령의 대표성과 국정관리 및 통치의 정당성은 강화될 수 있는데 반해, 반대의 경우 대통령은 낮은 대표성과 함께 국정관리와 통치의 위기, 더 나아가 국가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대통령의 성과 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통치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대통령 지지도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며, 대통령의 정책목표달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지원사업 '한국의 대통령리더십과 국가관리: 국가관리학의 정립 및 통치사료관 수립을 중심으로(과제번호:B00003G100047) 차수 2차' 과제의 지원으로 쓰여진 논문입니다.

을 주면서 정책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즉, 작게는 정책변화, 크게는 통치위기를 가져오는 대통령 지지도는 국민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정책의 내용과 특징, 사회경제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대통령 지지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대통령 지지도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혹은 정부의 정책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대통령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최평길, 2007; 함성득, 2002)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국정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노태우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현대 정치사에 중요한 정치적 격변기로, 민주화의 요구와 함께 최초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중산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오랜 군사독재 속에서 민주화의 요구의 거센 요구 분출이 특히 중산층에서 거세게 발생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사회변화의 주인공으로 부상한 중산층의 이반, 즉 중산층의 낮은 대통령 지지도는 협소하게는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통치의 위기, 더 나아가서는 국가위기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은 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6·29 선언, 대통령 직접선거라는 일련의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결과물들을 가져왔다. 그러나 6·29 선언과 직접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등장한 노태우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군부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주화 과정에서 내재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보통사람'을 외치며 등장했던 노태우 대통령의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정책들과 정치적 사건들을 분석하고 이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관계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대통령 지지도와 통치위기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Approval)는 대통령 리더십 원천 중 하나이다.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은 대중의 인기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 정치환경에서 끊임없이 대통령이 그의 정책과 아젠다를 수행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낮을 때 대통령의 선택은 감소되고, 기회는 사라지며, 전술적 전개를 위한 여지는 저지된다(Edward III & Wayne, 2003: 349). 따라서 국민의 대통령 지지도는 정책변화의 기회 존재 여부를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국정수행과 관련한 여러 기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먼저, 대통령과 국회 관계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은 대통령은 국회를 보다 더 수월하게 설득할 수 있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도 대통령에 대해 더 잘 반응을 보임으로써 효과적인 입법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Edward III & Wayne, 2003: 349).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면 언론은 대통령에 대한 보도에서 보다 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최평길·백정미, 2005). 결론적으로 국민의 대통령 지지도는 일상적인 상황을 변화를 위한 보다 호의적인 상황으로 변경하는데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이다(Edward III & Wayne, 2003: 349).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일부로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선거과정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에서, 또한 퇴임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대통령 지지도는 선거과정과 직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¹⁾. 대통령과 대중의 관계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국민들은 끊임없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재구성하게 된다(Edward III & Wayne, 2003: 112).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하다. Newman(2003)은 대통령 성실성(Integrity)의 대통령 직무성과 평가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결과, 대통령의 직무 성과 평가는 대통령 자체에 대한 평가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다 중요한 요인들이 대통령 개인의 성격, 특성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Gilens(1984)과 Clarke *et al.*(2003)은 남녀 성차에 따라 대통령 지지도에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연구하였다. 특히 Gilens(1984)는 레이건 대통령의 남녀 성차에 따른 대통령 지지도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지지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군사적 이슈와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Eisenstein *et al.*(2000)은 대통령의 지지도는 시간과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특히 생산품의 주기와 같이 S자 곡선의 생애주기를 보인다고 하였다.

Edward III *et al.*(1995)은 이슈의 중요성이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즉 시간에 따라 돌출되는 이슈들이 다양한데, 이러한 돌출된 이슈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가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슈들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여부에 따라 지지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어떠한 이슈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에는 지지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슈가 대통령의 책임으로 판단될 때 바로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개인적 측면에서는 대통령 개인의 성격(성실성 등), 정책 및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책내용 및 이슈의 중요성과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그리고 성별, 연령, 계층성 등 국민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준다(Edward III & Wayne, 2003; Gilens, 1984; Burden & Mughan, 2003).

다음은 대통령의 지지도와 관련한 통치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을 때 대통령의 국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더 나아가 통치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가위기 및 통치위기가 '누구의 위기이냐'이다. 김석준(1991)은 국가를 7개의 계층구조를 가진 개념으로 보고 이에 따라 위기의 내용과 위기의 대상이 다르다고 보았다²⁾. 나라로서의 위기, 상부구조로서의 위기, 지배블럭으로서의 위기를 구조적 위기, 사회관계 응집으로서의 위기, 관료기구와 법질서의 총체로서의 위기를 체제적 위기, 그리고 정부로서의 위기, 국가관리자 및 지도자의 위기를 상황적인 위기로 구분하였다.

낮은 대통령의 지지도에 의한 위기는 한편으로는 국가관리자, 지도자의 위기로 상황적 위기로 축소해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포함한 지배블럭으로서의 위기라는 구조적인 위기로 볼 수 있다. 즉, 군사독재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지배블럭으로서의 위기라는 구조적인 위기로서 지배블럭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민주화의 요구를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관리자, 지도자의 위기에서 지지도가 낮은 대통령은 국가관리자의 교체를 가져올 수 있다.

<표 1> 통치위기의 구분

위기 성격	국가 계층구조	내용
구조성	'나라'로서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영토, 주권을 지닌 정치적 물리적 공동체 •국가위기: 영토 혹은 주권이 단절되거나 분리되는 경우에 겪는 위기 예) 우리나라 - 일제 식민통치기, 미군정기, 해방후 분단국가
	'상부구조'로서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하부구조에 대한 정치적 법적 상부구조 •상부구조란 자본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법적이데올로기적·정치적 장치 •상부구조의 위기: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사유재산제도, 사적 소유권 보호의 각종 법제도 등을 위태롭게 하는 것,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의 이행
	지배블럭으로서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블럭 혹은 지배연합 •특정한 사회체제의 구성세력을 중심으로 위기 파악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핵심 지배블럭도 자본가를 중심으로 형성됨 •지배계급을 구성하는 특정계급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때 위협받게 될 때 국가위기로 표현

1)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다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직무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Edward III & Wayne(2003)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개인자체에 대한 평가와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대통령 지지도는 직무수행평가에 대한 지지도이다.

2) 김석준(1991: 220)은 국가위기 수준(나라위기, 상부구조위기, 지배블럭위기, 사회관계응집위기, 관료적 법질서 위기, 정부위기, 국가관리자위기), 성격(구조성, 체제성, 상황성), 기능적 위기(분단위기, 정당성위기, 발전위기), 관련주도변수(세계체제, 사회계급, 국가)를 통합하는 국가위기의 계층적 통합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표 1> 통치위기의 구분(계속)

위기 성격	국가 계층구조	내용
체제성	사회관계 응집으로서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관계의 응집: 국가는 다양한 사회세력 및 집단들의 이해관계, 갈등 및 긴장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해소하는 것으로, 이들간의 응집된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 의회민주주의제도, 3권분립체제 및 이익대표체제 등임 •사회세력간의 갈등을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국가가 잘 해소하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때, 기존의 사회관계에서 위기로 작용
	관료기구와 법질서의 총체로서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위기는 관료기구나 법제도가 변화할 때를 의미함 •반공이데올로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축으로 하던 국가제도가 새로운 이념이나 새로운 법제도로 그 기본질서가 변화될 때 위기
상황성	정부로서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구의 정유집단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정부와 동일함 •정부의 사회에 대한 관리능력 상실, 정책실패,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파탄 등으로 정부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때 위기
	국가관리자, 지도자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이나 내각 등 국가관리자 혹은 국가엘리트를 중심으로 좁은 의미의 정권과 유사한 개념 •지배세력 내부의 지나친 경쟁이나 지도자 개인의 사고, 관리능력 상실, 도덕성 상실 등으로 인해 대통령 등의 국가관리자가 그 지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자료: 김석준(1991) 재구성.

2. 계층에 대한 논의

계층 또는 계급형성은 장구한 세월을 걸쳐서 일어나는 사회변화현상이다. 계층과 계층 사이에 유동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기 계층과 타계층 사이에 구별이 뚜렷해지며, 그와 같은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정치행태에 차이를 가져올 때 계층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조중빈, 1988: 142). 계층은 사회정치적 현상을 비롯한 정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계급 혹은 계층을 중심으로 정치인식과 정치행동에 대한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정 계층이 사회변화, 정치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군사독재의 붕괴 과정, 그리고 민주화의 과정에서 중산층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계층구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중간계급 혹은 중간계층이 꾸준히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현대의 산업사회가 중산층사회(middle class society)변모하고 있다(이종수, 1987: 182). 중산층의 규모가 커지고 중산층 의식이 확산될 경우 그들의 독특한 정치적 성향이 정치·행정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중간계층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전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일관된 것이 아니라 특정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이종수, 1987: 181).

사실 중산층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구소득, 교육, 직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중빈(1988: 135)은 계층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농민층으로 구분하고, 중산층은 이미 경제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의식적, 행동적 특성을 동시에 지칭하는 용어로 보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중산층을 신중산층과 구중산층으로 구분하면서 이전의 블루칼라에 해당하는 계층을 구

중산층, 화이트칼라에 해당하는 계층을 신중산층으로 구분하였다. 중산계층은 산업조직체에서 임금을 받는 서기직에서 대기업 중역에 이르는 고용인, 금융상공인, 국가관료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계층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사실이다.

계급 개념이 다원화된 계층개념으로 변화된 산업사회에서 이들 중산계층은 이념적으로 최상위 계층의 우파 보수성향과 하위계층의 좌파 급진성향을 동시에 포함하고 또 수렴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최평길, 1988: 270).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속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지속적으로 개혁수정 발전시키려는 진보적 중산계층이 신중산계층으로 새롭게 대두되게 된다(최평길, 1988: 270-271; Bendix & Lipset, 1958). 이들은 대학 수준의 고학력자로 도시거주 전문직 종사자로 사회 각 조직 기능의 전위 증견집단으로서 능동적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최평길, 1988: 271). 대학졸업 후 중소도시 이상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계층은 사고와 행동에서 진보적이어서 민주주의의 요체인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는 중산계층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1987-1988년 민주화 과정에서 이러한 진보적 중산계층의 한국 정치사회 변화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종수(1987)에 따르면 1980년대 한국의 중산층은 강력한 체제개혁 열망을 지닌 진보적 사회집단이었으며, 질서유지와 같은 권위주의적 정치정보보다는 정치참여, 언론자유와 같은 민주적 기본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진보적 성향을 지니며 강력한 민주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정황에 있어서는 노동세력을 적대시하거나 그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으며 경제체제면에서 자유자본주의보다는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자본주의를 지지한다. 그리고 행동정향면에서 한국의 중산층은 소극적이지만 연령이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특성들은 1987년 대학생들의 민주화투쟁과 넥타이 부대의 거리진출로 설명할 수 있다.

III.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위기와 대통령 지지도: 중산층을 중심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중산층 지지도를 중심으로 통치위기와 이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국정상황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정의와 방법론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의 선거 득표율과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도를 토대로 한다. 대통령 지지도를 나타내는 자료는 1987년 대통령 선거 자료와 1991년에 꺾임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자료이다. 대통령 선거 시 나타나는 득표율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자료는 계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보충자료로서 1887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한다.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조중빈(1988)과 최평길(1988)의 계층분류를 원용하면서, 교육수준은 대제이상, 직업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자영업자, 관리 자유직, 학생을 중산층으로 본다. 이 중에서 화이트칼라와 관리 자유직, 학생은 신중산층에서 재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하층,

중층 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중층을 중산층으로 개념 정의한다.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노태우 대통령 선출 전후 그리고 집권시기 동안 정치상황과 국정운영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진다.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중산층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태우 대통령 이전 군사독재시절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전개하고자 한다.

1. 군사독재의 역사와 민주화 요구

Almond(1996: 34-35)의 국가발전단계를 원용하고, 한국의 정치·사회·경제 변동을 감안하여 국가발전단계를 분단국가 형성기(1945-1953), 분단하의 국민형성기(1953-1961), 경제성장기(1961-1988), 참여·배분 정치기(1988-)로 구분할 수 있다(한정일, 1989)³⁾.

6·25가 발발할 당시 이승만의 정치기반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으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군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세력기반을 마련했으며, 원외 자유당을 통해 정치권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즉, ‘반공’을 구실삼은 이승만 독재정치의 막이 시작되었으며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통한 권위주의 정치가 출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하야 후 자유당 말기에 계획된 박정희·김종필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민주당 정권이 9개월 만에 전복되고, 뒤이어 들어선 박정희 정권의 18년 5개월 통치기간과 전두환·노태우의 1979년 12·12 쿠데타 이후 8년 2개월간 전두환 정권까지의 총 27년간은 명목상의 자유민주체제였지 사실상 군부독재정권으로서 전체적 리더십을 통한 권위주의 정치의 전성기였다(한정일, 1989: 201).

이승만 정권은 분단국가 형성기, 분단하의 국민형성기의 대표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후 27년에 달하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제성장기로 참여 배분정치가 이룩되지 못함으로써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의식수준도 성장하고 민주화의 욕구도 커져 갔다. 따라서 1985년 이후 각종 민주화 운동의 발생은 자생적이며 필연적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운동의 가장 결정판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다. 1987년 6월 항쟁 등 민주화 요구는 국가관리자 및 지도자의 위기, 관료기구와 법질서의 총체로서의 국가위기, 더 나아가서는 지배블록으로서의 국가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집권세력은 이러한 국가위기, 즉 통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6·29선언⁴⁾

- 3) 분단국가 형성기는 1948년 남북한 정부 수립 이후 1950년 6·25 전쟁을 거쳐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분단하의 국민국가형성기는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집권시기와 4·19를 통한 장면정부 시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61년 5·16이후 부국강병론을 주장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1988년 2·24 전두환 정권까지 군사쿠데타에 의한 27년간의 군부 독재 통치기를 정치·경제·사회적 특징과 관련지어서 경제성장기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경제성장이란 경제발전과는 다른 개념으로 경제성장이 배분과 관계되었을 때 경제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한정일, 1989: 197).
- 4) 6·29의 민주화 선언은 ① 대통령 직선제 개헌, ② 대통령 선거법 개정 ③ 정치활동 보장 ④ 국민의 기본권 보장 ⑤ 언론기본법 철폐, 언론자유 보장 ⑥ 지방자치 보장 ⑦ 정당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정치환경 조성

을 하였다.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선언을 통해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였는데, 결국, 6·29 선언은 국민에 대한 집권 세력의 항복선언인 동시에 집권세력의 자구책이었던 것이다. 즉, 민주화를 향한 개혁이 노태우의 평소 신념이나 철학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 단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임도빈, 2008: 228). 6·29 선언으로 1987년 10월 27일 [대통령 직선제 합이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져 93.1%라는 높은 찬성율로 헌법개정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주된 역할자는 누구인가? 한정일(1989: 205)은 학생중심의 운동권과 중산층의 연합세력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하였다. 1988년에 진행된 국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다른 계층에 비해 중산층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중빈, 1988). 주변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신중산층이상의 경우 90% 이상이 주변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을 했으며, 한 달 한 두번 이상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비율도 하층과 농민층에 비해 신중산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치의식이 민주화 요구의 분출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표 2> 정치적 관심도에 대한 여론조사(단위: %)

정치적 관심도	항목	상	신중산	구중산	하	농민
주변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다	31	39	28	30	27
	약간	62	55	60	41	46
	없다	7	7	12	38	27
정치에 대한 이야기	거의 매일	14	16	7	8	9
	일주 한두번	38	45	41	34	29
	한달 한두번	38	22	30	28	21
	거의 않함	10	18	22	31	42

※ 자료: 조중빈(1988) 재인용.

2.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지지도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된 13대 대통령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화의 첫 발걸음을 내딛은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 동일한 군부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군사정권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 특히 당시 민주화의 선봉에 서서 6·29 선언을 이끌어낸 중심계층인 중산층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분석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대통령의 통치와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관계를 가능해보고자 한다.

- ⑧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과감한 사회개혁 추진 등 8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임도빈, 2008: 228).

노태우 대통령은 1987년 12월 16일 새헌법에 따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득표율은 36.6%로 이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중 최저의 득표율이다(아래 <표 2> 참고).

낮은 득표율은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 직선으로 법적 정당성은 부여받았더라도 정치적 정당성과 대표성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에 힘입은 바 크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0년의 12·12 사태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 제 5공화국의 창업공신이었으며, 사단장,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 등 군부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군부의 핵심인물이었다. 따라서 민정당 대표로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한 6·29 선언을 한 주역이긴 하지만 이는 노태우 본인의 소신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방책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생적인 한계는 그 후 국정운영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표 3> 역대 대통령 득표율(단위: %)

대통령	득표율
13대 노태우(1988~1993)	36.60
14대 김영삼(1993~1998)	42.00
15대 김대중(1998~2003)	40.30
16대 노무현(2003~2008)	48.90
17대 이명박(2008~2012)	48.6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노태우 대통령 득표율과 관련하여 1988년에 진행된 국민 정치의식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선거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에 대해 계층별로 차이를 보인다(조중빈, 1988). 노태우 대통령은 구중산, 하층, 농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민층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거의 50%에 가깝다. 그 외에 김대중은 신중산층의 지지를 받고, 김영삼은 상층과 하층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민주화 등 사회개혁 요구를 강하게 분출했던 화이트 칼라와 대학생에 해당하는 신중산층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김대중과 김영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행태(단위: %)

	대통령 후보	상	신중산	구중산	하	농민
대통령 선거시 투표	김종필	17	11	15	12	11
	김대중	28	35	20	24	30
	김영삼	44	29	30	33	14
	노태우	11	24	35	32	46

※ 자료: 조중빈(1988) 재인용.

이후 1988년 4월 26일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으며, 이는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위기, 지배세력의 국가위기를 더욱 확대시키게 되었다. 여소야대 국회 정국동안 5공 청산이 권위주의적인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및 경찰관계법 등 법적 청산과 5공 강경지배 세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인적 청산의 요구로 나타나 국회는 청문회, 국정감사, 법 개정, 정경유착과 같은 5공 비리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김석준, 1991: 224). 이는 5공, 즉 군부세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위기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전 정권과 선을 긋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초기부터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즉, 첫 내각 구성에서 전두환 정부의 장관 7명을 유임시켜(임도빈, 2008: 229) 인적 청산의 기회를 날렸다.

노태우 정부 취임 후 1년 1988년 2월부터 1989년 3월간은 사회적 갈등이나 국가위기의 잠재 요소들이 활발히 분출되고 이를 정치제도가 수렴코자 하던 기간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법질서와 관료기구(안기부, 진투경찰, 보안사, 경찰 등)의 성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측면(관료기구와 법질서의 위기)과 인적 청산(지배연합의 위기) 등이 국가위기의 주요 성격을 이루었다. 사회세력 내부에서는 물론 국가기구, 법제도 및 지배연합의 재편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려던 기간이다(김석준, 1991: 224). 이는 노태우 정부에게는 크게 딜레마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전의 군부정권과 단절하고 새로운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구현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구현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자신의 지배연합 구조를 계속 유지 혹은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1989년 4월부터 1990년 1월 기간 동안 곧바로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사회 내 민중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야당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였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청명계획과 전교조 불법화 정책이다. 이로써 사회계급세력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회복되고, 나아가 국가가 정치변동의 주도세력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게 되었다. 또한 여전히 여소야대 국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야당 총재들을 서경원의원, 임수경, 문규현 신부의 방북사건의 배후로 연루시켜 소환·조사하여 야당을 무력화시켰다.

즉, 국가안보기구와 강경지배세력은 민중세력을 탄압, 구속, 규제함으로써 지위를 회복하고 보수대연합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고, 이는 1990년 1월 12일 민정·민주·공화당의 3당합당과 민주자유당의 창당으로 이어졌다(김석준, 1991: 225). 3당 합당을 통해 개헌선을 훨씬 초과한 218석을 차지하는 등 절대권력을 쥐게 된 민주자유당은 날치기 통과 강행, 반대파 억압, 사회운동 탄압 등의 통제를 가하였다. 이는 민주화 과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는 ‘보통사람’을 외쳤던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유지를 위해 ‘보통사람’에게 등을 돌린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폐지대상이었던 안보 관련법과 기구들의 지위가 회복 강화되는 반면, 강력히 추진되어 오던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및 형평 세계개혁 등이 연기되는 등 민주화 과정에서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취임사에서 밝혔던 계층 간·지역 간 격차해소와 정의롭고 공평한 소득분배는 일종의 구

호에 불과하고, 군부독재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해소시키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소수 지배계층의 이익옹호를 위해 민중에 대한 탄압정책을 피면서 국민의 대통령 지지도는 계속 떨어진 것이다. 지지도 하락은 1991년 꺾임에서 진행된 노태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직무수행평가를 위한 질문은 '노태우 대통령이 그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대체로 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3년 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하락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12.3%로 낮는데 반해, '잘못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비율은 39.9%로 긍정적인 평가의 3배 이상의 결과를 보인다.

각 계층별 특히 중산층의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 즉, 지지도를 보면, 먼저 교육수준의 경우 중산층에 해당하는 대재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응답자들의 대통령 지지도가 다른 계층보다 떨어진다. 국졸이하의 지지도가 21.1%로 가장 높고 대재이상은 7.3%로 가장 낮다. 그리고 부정적인 응답은 반대 현상을 보이는데, 대재이상의 경우 절반이상인 52.0%가 노태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 중산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관리자유직, 학생의 경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농/임/어업종사자와 가정주부, 무직 기타보다 높다. 중산층에서 신중산층에 해당하는 화이트칼라, 관리자유직, 학생의 경우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화이트칼라는 9.6%, 관리자유직은 5.8%, 학생은 6.3%로 10% 미만의 지지도를 보이는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화이트 칼라 48.5%, 관리자유직 53.1%, 학생 54.5%로 50%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노태우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보면 중산층 이상의 지지율이 하층의 지지율보다 낮다. 즉, 상층 9.1%, 중층 10.9%, 하층 18.6%의 분포를 보여 중상층의 지지도가 하층의 지지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수준으로는 대재이상, 직업분류상 화이트칼라·관리자유직·학생, 그리고 소득수준이 중층인 중산층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다른 계층과 비교해서 낮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을 모두 고려한 중산층의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와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다른 계층과 비교해서 유의미한지에 대해 통계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표 5>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 결과(1991년)(단위: %)

	구분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잘못하고 있다	모름/두고놔야
교육수준	국졸이하	21.1	39.7	28.8	10.4
	중졸	13.3	47.6	31.6	7.5
	고졸	9.6	40.1	43.3	7.0
	대재이상	7.3	36.4	52.0	4.4
직업별	농/임/어업	17.3	48.0	31.2	3.5
	자영업	11.2	40.5	41.7	6.6
	블루칼라	10.8	38.4	48.6	2.2
	화이트칼라	9.6	36.9	48.5	5.0
	관리 자유직	5.8	41.1	53.1	-
	가정주부	13.5	42.6	32.5	11.4
	학생	6.3	34.2	54.5	5.0
	무직 기타	13.9	33.5	39.7	12.9
생활수준	상층	9.1	35.4	48.9	6.5
	중층	10.9	42.9	38.6	7.5
	하층	18.6	42.3	31.4	7.7
전체		12.3	40.5	39.9	7.33

※ 자료: panel.gallup.co.kr.

※ 1991. 1. 25-1991. 2. 7까지 이루어진 전국민 정치의식 조사의 결과임(표본수: 2,000명).

※ 생활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층은 100만원 이상, 중층은 50-99만원, 하층은 49만원이하로 구분함.

다음으로 1990년 1월부터 집권말까지의 기간은 우선 민정, 민주, 공화 3당의 합당, 즉 보수대연합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로 인해 국가주도의 자본적 계급성이 다시 확고히 정립되었다. 3당 합당은 정치적 대의명분보다는 정권재창출 혹은 차기 대통령 당선을 목표로 한 것이다. 사실 3당 합당 이후 형평이나 복지이념은 실종되고 자본가 계급 국가를 공식화시켜 성장위주의 이념을 추진하고, 의회기능을 약화시켜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가보안법 날치기(1991년 5월) 등 각종 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김석준, 1991: 226).

즉, 6공화국의 기반인 6·29선언이 계급타협의 산물임을 망각하고 사회세력에 대한 대결방식에 대한 배타적 적용은 이미 전국 조직화를 이룬 중산층의 핵심세력이라 볼 수 있었던 전노협, 전교조, 전대협 등과 같은 사회세력을 관리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들의 요구 수용과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정권이 이들을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탄압일변도로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김석준, 1991: 230).⁵⁾ 1991년 4월에 발생한 강경대 사망사고를 기점으로 한 분신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노태우 대통령 퇴진 압력이 거세졌다.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논의되었던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이 연기 혹은 후퇴하는 등 각종 개혁 정책들이 뒷걸음침으로써(연합뉴스, 1990. 3. 26)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하락을 가져왔다.

5)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전노협 결성대의 원천봉쇄(1990. 1. 22), 대기업 연대노조 지도자 수배구속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임기말 임무를 마치면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질문은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응답자의 47.0%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한 가운데, 대재이상은 64.0%, 자영업 62.2%, 화이트 칼라 51.9%, 학생 69.4%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중산층의 노태우 대통령에 평가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6> 노태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임기말(1993년)(단위: %)

	구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렇지 못하다	반반이다	모름/무응답
교육수준	국졸이하	67.8	23.1	8.0	0.9
	중졸	51.4	34.1	12.5	2.0
	고졸	37.4	48.0	11.0	3.7
	대재이상	25.9	64.0	10.0	-
직업별	농/임/어업	58.6	35.9	5.5	-
	자영업	25.7	62.2	12.0	-
	블루칼라	34.2	51.9	12.3	1.6
	화이트칼라	34.5	55.3	8.7	1.6
	가정주부	46.1	39.2	11.6	3.1
	학생	15.9	69.4	11.8	2.9
	무직 기타	58.0	32.8	9.2	-
전체	40.8	47.0	10.4	1.8	

※ 자료: panel.gallup.co.kr.

※ 1993. 2. 10에 이루어진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임

3. 요약정리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된 13대 대통령으로 당시에 분출하였던 민주화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 장기간의 군사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는데, 그 중심에 중산층이 존재한다. 중산층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진보적 성향을 지닌 계층으로서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통치 및 국정운영에 대한 영향을 준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국정운영의 실패, 즉 통치위기를 가져오기도 한다. 대통령의 통치위기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일련의 노태우 대통령 출범 이전 여론조사, 노태우 대통령 선거 득표율, 노태우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민주화의 외피를 썼지만 군사독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중산층 지지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중산층 지지도는 상당히 낮았다.

대통령 취임연설을 통해 민주개혁과 국민화합을 2대 국정지표로 내세우면서 그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국민적 협조를 호소했지만, 5공청산 미 군부독재 청산에 미온적이었으며, 계층간·지역간 격차해소

와 정의롭고 공평한 소득분배는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과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후퇴하면서 공염불이 되었다. 또한 더 나아가 지배연합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야당과 중산층에 해당하는 시민 세력을 철저히 탄압함으로써 민주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민주화 개혁에 대한 역행과 일련의 사건들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을 가져왔으며 이는 정권퇴진운동으로 이어지면서 통치위기를 극대화시켰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로 인한 통치위기는 정권재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러한 정권재창출의 어려움을 3당 합당으로 풀었다.

IV. 맺으며

본 연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대통령 지지도를 실제 노태우 대통령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개혁세력이나 가장 정치참여가 활발한 중산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대통령 개인적인 성격, 정책 및 이슈, 사건의 발생과 중요성, 정책 및 이슈,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성, 국민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등 다양하다. 사실 각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 결합하여 대통령 지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다. 다만 여기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중 계층과 대통령의 정책 및 이슈,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대 정치사에서 오랜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화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한 것이 1987년 민주항쟁과 6·29선언, 그리고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 당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중산층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화이트칼라로 대표되는 중산층이 성장하는데, 중산층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진보세력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건과 관련한 중산층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살펴봄으로써 대통령 통치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산층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낮았다. 이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의 여론조사, 대통령 선거에서의 낮은 득표율,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는 당선 이후 여소야대 국회 출범과 함께 통치위기를 극대화시켰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형평·복지·분배이념의 강화, 5공청산,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추진 등을 통해 민주화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러한 통치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선언은 공염불로 그치고 사회에 대한 국가통제력을 회복한 이후 분단위기를 바탕으로 정당성위기와 분배위기를 사회세력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중산층을 포함한 사회세력의 이반을 초래하였다.

사실 대통령 지지도가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의 성과에 대해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성과 혹은 통치위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대통령 지지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군사독재를 거쳐 노태우 대통령 시기까지는 사회세력이 발달하지 않은 정치사회환경 속에서 분단국가라는 나라로서의 위기가 통치기반이 되기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사독재시기에 있어서 대통령 지지도가 갖는 의미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시기를 거쳐 현대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대통령 지지도를 정책수행 및 성과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대상인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와 성과와 국민의 지지도에 대한 관계에 인과관계 혹은 구체적인 관계를 설정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이후 대통령에 있어서 대통령 지지도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서 갖는 의미와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평가는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갤럽 패널 데이터베이스. <http://panel.gallup.co.kr>.
- 김석준. 1991. 국가위기에이른 적실성과 제6공화국 국가위기의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25(1): 207-235.
- 연합뉴스. 1990. 금융실명제 연기문제 집중 논의. 1990. 3. 26.
- 이갑윤, 문용직. 1995. 한국의 민주화: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9(2): 2217-2232.
- 이강노. 1992. 대통령제와 14대 대통령 선거의 전망: 노태우대통령의 정치리더십에 관한 한 연구: 6.29 선언·중간평가·3당합당에 있어서 그의 태도와 역할을 중심으로. 선거와 한국정치, 463-487.
- 이종수. 1987. 중산층의 대두와 한국행정의 과제. *한국정치학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7: 181-196.
- 임도빈. 2008. 역대 대통령 국정철학의 변화: 한국행정 60년의 회고와 과제. *행정논총*, 46(1): 211-251.
- 조중빈. 1988. 사회계층과 정치의식. *한국정치학회보*, 22(2): 131-14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 최평길. 1988. 한국의 정치문화와 진보적 중산계층의 정치의식. *한국정치학회보*, 22(2): 265-277.
- 최평길. 2007. 대통령학: 대통령을 보면 나라가 보인다. 서울: 박영사.
- 최평길, 백정미. 2005. 대통령과 언론: 대통령과 언론미디어의 관계 실증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4): 389-409.
- 한정일. 1989. 정치사회변동의 정치발전론적 고찰: 1945년-1989년. *한국정치학회보*, 23(2): 191-208.
- 함성득. 2002. 한국의 역대 대통령 평가. 서울: 조선일보사.
- Almond, Gabriel Abraham and G. Bingham Powell, Jr. 1966.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and Brown.
- Bendix, Reinhard, and Seymour Martin Lipset. 1959.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y*. Berkeley, California: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urden, Barry C. and Anthony Mughan. 2003.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Presidential Approval. *Public Opinion Quarterly*, 67(4): 555-578.
- Clarke, Harold D., C. Stewart, Marianne, Mike Ault, and Euel Elliott. 2005. Men, Women and the Dynamics of Presidential Approval.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1): 31-51.
- Cohen, Jeffrey E. 2012. Interest Group and Presidential Approval.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42(3): 431-454.
- Edward III, C. George, and J. Wayne Stephen. 2003. *6th ed. Presidential Leadership: Politics and Policy Making*.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Edward III, C. George, William Mitchell, and Reed Welch. 1995. Explaining Presidential Approval: The Significance of Issue Sal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1): 108-134.
- Eisenstein, Maurice M. and A. Witting Marie. 2000. Time and the Life Cycle of Presidential Approval: A Research Note. *The Social Science Journal*, 37(1): 27-42.
- Gilens, Martin. 1984. Gender and Support for Reagan: A Comprehensive Model of Presidential Approv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1): 19-49.
- Newman, Brian. 2003. Integrity and Presidential Approval: 1980-2000. *Public Opinion Quarterly*, 67(3): 335-367.

白貞美: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기획실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대통령의 리더십 등이다(jeongmi90@yonsei.ac.kr).

투 고 일: 2013년 12월 07일

심 사 일: 2013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7일

The Crisis of Governance and Disaffection of Middle Classes

—Focused on Approval Rate on Roh, Tae-woo—

Jeong Mi Baek

The Approval rate about president is very important for governance. The approval rate about president is the cause and consequence of successful performance, and the opportunities and risk factors of the re-creation of the regime. And It is induce the crisis of governance. This study analyze the governing of president Rho Tae-woo and presidential approval rate of middle class. The president Rho Tae-woo that will going to work for the 'average person', achieve the democratization that is aspiration of the middle class. But, he suppressed the people for the interests of a few ruling class. And he made the middle class, leading class of 6·29, the enemy. This followed the decline of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e of the middle class. The decline of presidential approval rate leads to difficulty of re-creation of regime. The re-creation of regime will be realize only by the parties merger, namely, a alliance among the conservative forces.

Key words: crisis of governance, middle class, approval rate